

“광주 집단폭행 엄벌” 들끓는 여론

청와대 청원 27만명...경찰 해명에도 “소극 대응” 여론 싸늘 조폭 연관·살인미수 적용 여부 수사...가해자 2명 추가 구속

경찰의 소극 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또 애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피해자도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찰서장이 SNS에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까지 남겼지만,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분노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이모(29)씨와 한모(25)씨 등 2명을 추가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풀숲에서 정모(33)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정씨의 다른 일행을 폭행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폭행을 주도한 박모(31)씨 등 3명을 먼저 구속하고 이씨와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다.

또 경찰은 집단폭행이 발생하기 전 시비가 붙은 2명과 싸운 것으로 알려진 집단폭행 피해자 정모(33)씨의 쌍방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들의 잔인한 집단폭행 장면과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SNS를 타고 확산하자, 광주광산경찰서장이 직접 나서 SNS상에 해명 입장을 표명했다.

김순호 광산경찰서장은 지난 5일 밤 10시 17분께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산경찰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주광산경찰서장이 이번 집단폭행사건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라는 A4 2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김 서장은 “SNS 동영상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신속한 출동, 상호분리, 부상자 후송, 경찰장구를 이용한 가해자 체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피의자들의 조직폭력배 연관성을 철저히 수사하고 살인미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해명에도 시민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누리꾼은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말만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해자들을 강력처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7만 명에 달했다.

“한 번씩만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7일 오후 6시 현재 26만 7907명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충족해 답변을 앞두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진실이어! 일어나라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울 1만t급 해상크레인이 지난 5일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 해상크레인은 와이어 연결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10일 옆으로 누워있는 선체를 똑바로 세울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10일 직립

내일 3시간 예행연습

옆으로 누운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이 오는 10일을 목표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7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 선체 직립을 수행할 1만t급 해상크레인 ‘현대 만호’(HD-1000)가 도착했다.

9일에는 3시간 정도 예행연습을 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선조위와 직립공사 계약사인 현대상호중공업은 준비가 끝나면 ‘디데이’인 10일 오전 9시 직립 작업을 시작한다. /김한영기자 young@

경찰, 광주교대 총장 후보 성추행 의혹 내사

외국인 교환학생·한국 여학생 피해 주장... 후보는 “사실무근”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후보자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광주북부경찰은 “광주교대 총장후보자 A교수가 과거 외국인 여학생(교환학생)과 한국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내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개월여간 광주교대에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머물렀던 필리핀 국적 B씨는 귀국을 사흘 앞두고

되던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A 교수는 “당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음료수와 비용을 계산하고 나온 적은 있으나 저녁 식사 자리는 물론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고 불미스런 일도 없었다”며 “나를 총장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측의 방해공작이고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SNS건”은 “이미 총장 자격심사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내리진 상황으로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장 1순위 후보가 된 A교수는 2위 교수와 함께 교육부에 임명 제청돼 있는 상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5 해질 19:23 달 뜨기 01:22 달 지기 12:04

‘어버이날’ 한낮 더위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았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구름많음	13/25
목포	맑음	12/21
여수	구름많음	13/20
나주	구름많음	10/23
완도	구름많음	13/22
구례	구름많음	10/24
강진	구름많음	12/23
해남	맑음	11/22
장성	맑음	9/23

시간	온도(°C)	풍향	풍속(파고)
오전	13~25	북~북동	0.5~1.0
오후	19~24	서~북서	0.5~1.0

◇바다 날씨

지역	바다 날씨	기온(°C)
서해	안바다	북~북동 0.5~1.0
남해	안바다	북~북동 1.0~2.0
남해	안바다(동)	북동~동 1.0~2.0
서부	안바다(서)	북동~동 1.5~3.0
남해	안바다(서)	북동~동 1.5~2.5
남해	안바다(동)	북동~동 2.0~4.0

◇생활지수

지수	상태
식중독	관심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날짜	날씨
11/24	구름
11/25	구름
11/26	구름
12/23	구름
16/22	구름
15/27	구름
16/26	구름

연휴 끝 날씨 화창...이번주 내내 포근

이번 주 광주·전남은 화창한 봄 날씨가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인 13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등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이 기간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보이는 등 평년(아침 최저

‘뇌물 수수’ 혐의 한전 간부 2명 체포

검찰, 나주 한전 본사 압수수색...서류 등 증거 확보

한국전력공사(한전) 간부들의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전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고위 간부 2명을 체포했다. 한전본사가 나주로 이전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4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하고, 고위 간부 2명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임원급 간부가 업자로부터 뇌

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간부의 사무실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15~2016년 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줄 때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전 모 지역본부 중간 간부급 직원을 구속했다. 이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이 임원급 간부에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자세한 분양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wpower.co.kr

민음과신뢰의 100년 기업
www.kwpower.co.kr

제주도

임야/토지 매입 (전,답도가능)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99KW * 350기)

태양광발전소분양

- 제주 한림읍 1차 99KW (잔여분) **분양완료**
- 제주 한림읍 2차 99KW (잔여분) **75기**
- 경복 의성군 8차 99KW (잔여분) **10기**
- 강원 영월군 1차 500KW (잔여분) **3기**
- 강원 영월군 1차 99KW (잔여분) **2기**
- 충남 천안시 1차 99KW (잔여분) **1기**
- 충북 제천시 3차 99KW (잔여분) **4기**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일시 :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국도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

◆◆예약접수 선착순 100명◆◆

태양광 사업 부지 (14만8천평)

제주 아덴힐 리조트, 이덴힐CC, 캐슬렉스제주CC, 제주신와월드, 제주국제학교

제주시 한림읍 음악리 산23번지 외 11필지 (총 148,260평)

태양광 설치 후 집중지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30년내에 공공, 싱가포르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입 개발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지점 위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안전과의 거래로 인한 안전성 월수익 약 270만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32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변회(제 대구-00973호)

www.kwpower.co.kr

KYUNGWONPOWER

경원파워

상시 방문 상담 가능

T)1644-4192 H)010-5110-5660